미 가계 순자산,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6월 11일 미 연준이 발표한 소비자 금융조사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진행된 경기 불황으로 가계 순자산은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, 특히 중산층의 순자산 감소폭이 커지면서 불평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 - 평균적인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2007년 12만 6,400 달러에서 2010년 7만 7,300 달러로 40% 가량 감소하였으며, 가계소득도 2007년 4만 9,600 달러에서 2010년 4만 5,800 달러로 7.7% 감소함.
  - 특히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중산층 가계는 순자산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, 소득에 있어서도 상위층과 하위층이 각각 투자수익과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증가한 반면 중산층의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중산층의 자산 및 소득 감소는 금융위기로 미국의 불평등도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.

- 한편, 경기불황 이후 저축을 하고 있는 가계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부채규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저축과 대출 구성상에도 변화가 나타남.
  - 저축을 하고 있는 가계 비중은 2007년 56.4%에서 2010년 52.0%로 하락하였으나 전체 저축액은 증가하였는데, 이는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는 증가한 반면 저축을 하는 가계는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.
  - 저축의 목적도 은퇴나 교육, 주택대출 상환보다 단기 유동성 확보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소득감소와 저금리 효과가 상쇄되면서 부채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대출항목별로는 카드와 자동차 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학자금 대출 비중이 증가함.

(New York Times, 6/11 등)